

특집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운영사례



글 | 이 정 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담당 주무관
hae70@sen.go.kr

기존의 인쇄자료들이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로 탄생해야 할 존재의 이유를 가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보습득, 업무, 소통, 놀이 등 생활의 모든 것을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 활용하는 모바일(스마트) 라이프 생활을 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과거 책에만 의존하던 공공도서관의 대 이용자 서비스의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는 자료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2009년에 비해 6.3% 감소한 반면, 전자책의 이용율은 성인 11.2%, 학생은 43.5%로 나타나 학생층을 대상으로 성인은 2배, 학생은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전자책 이용이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종이책 위주의 독서 방식에 대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을 다소나마 느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움직임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도 인쇄물 중심의 자료 제공에서 벗어나 전자책, 이러닝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자료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운영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2010년 12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시작은 2~3년 전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몇몇 자치구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인쇄자료를 운영주체 또는 인근 지역간 도서관간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추진되어 온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의 통합 움직

임에 따라 대두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은 인쇄자료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산재한 다양한 전자자료에 대한 공동 수집·활용은 불가능할까? 라는 질문에서 태동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의 운영 현황과 서비스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 보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두된 전자책 시장의 문제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 하고자 하는 도서관들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통합 전자도서관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의 서비스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http://e-lib.sen.go.kr>(e-리브)의 도메인 네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운영 22개 도서관 및 평생 학습관에서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관 회원에게만 서비스하고 있던 자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서 신규로 구입한 자료를 포함하여 모두 약 19,600여종의 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보유자료 현황

전자책	이러닝 강좌	도서관 길라잡이	도서요약 서비스	독서진단 서비스	신간안내 서비스	전자 잡지	오디오북 서비스	온라인 음악서비스	학술정보 서비스	다국어 번역	모바일 도서관
13,878권	546종	1식	128권	1식	748권	60종	156권	1식	1식	2종	1식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은 단순한 전자책이나 디지털콘텐츠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법 및 이용안내 콘텐츠인 ‘도서관 길라잡이 서비스’, 도서 정보 및 신간 자료를 안내해주는 ‘도서요약·신간안내 서비스’, 초·중학생의 독서능력을 진단하고 자신의 독서능력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준별 맞춤형 독서진단서비스’, 책만이 아니라 잡지에 흥미가 있는 이용자가 잡지를 보기 위하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잡지 서비스’, 약시자·저시력자와 이동하면서 자료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디오북서비스’, 책만이 아니라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운영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소장 자료 외의 다양한 정보자료원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술정보서비스’, 전 세계 다양한 언어의 웹사이트 이용을 지원하는 ‘다국어 번역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자책 이용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도서관 활용 및 전자책 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바일 도서관(mobile library) 서비

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의 모바일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통합검색이 가능하며 모바일회원증 발급,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모바일 진동전화 알림서비스, 도서예약/취소, 희망도서 신청/조회, 대출현황 조회 및 반납연기, 신착자료 조회 서비스, 휴관일·공지사항·도서반납일·예약도서 도착 정보 알리미 서비스, 근접 도서관을 검색할 수 있는 도서관 위치 정보 서비스 등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은 2010년 12월 15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어 아직 걸음마를 막 시작한 단계이지만 2011년 3월 31일 현재 총 2,837명의 회원 가입자수와 5,510명의 이용자가 이용하였으며 10,930건의 자료 이용건수의 이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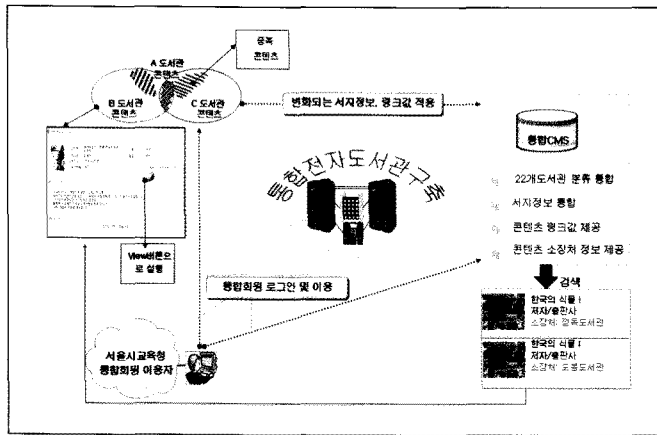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DRM 화면 예시

통합 전자도서관 운영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구축 배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운영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제공하던 전자책,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중복 구입과 고가의 구입 자료를 해당 기관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게 됨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 고민에서 시작되었으며, 서비스 대상은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대출회원만을 대상(웹회원 제외, 서울특별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재학·재직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으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외부 IDC센터로 신규로 구축하여 기존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보유 자료는 기존의 공급 당시의 라이선스 약관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개별 도서관에 위치한 내부 서버에 탑재된 채로 신규로 만들어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 및 소장처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로 구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은 새로 구축된 외부IDC센터에 신규로 구입한 전자책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탑재하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CMS)를 통하여 개별 기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 구성도

위의 서비스 구성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기관 보유자료는 구입 당시 라이선스에 의해 제한점으로 작용된 자료의 물리적 이동 불가에 따라 서지정보만을 통합하여 22개 도서관 등에서의 통일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링크값과 소장처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신규로 서비스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의 신규 구입 자료는 전자자료의 통합 제공에 따른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전자책의 경우 1책당 최소 10user의 자료를 구매하여 웹회원을 제외한 대출회원가입이 완료된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개별기관 단위 제공 이용자보다 축소된 이용자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스마트폰 라이브러리, 전자책, 독서진단서비스 등)는 자산 소유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잦은 경향 변화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서비스 분야(어학, 자격증취득, 도서요약, 전자잡지, 오디오북, 시간안내 정보 등)는 구독 방식인 ASP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자책 공급 업체 간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통합 전자도서관에 공급하는 자료의 단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자간의 적극적인 서비스 접점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신간 전자자료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국내 최대의 전자책 업체였던 북토피아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전자책이 종이책의 대안이라는 출판사들의 인식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전자책 출판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한 신간 전자 자료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으로 인하여 다소나마 전자책 시장의 활기가 기대되고 있으나 이런 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출판되는 자료들이 탐독을 원하는 자료보다 오히려 흥미위주의 판타지·로맨스 소설 등의 출판이 증가되는 문제점도 일부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문제로는 플랫폼 연동 및 확장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자책 시장에 출판되는 대형 유통사들의 전자책은 모두 각기 다른 전자책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은 각기 다른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확장성·연동성 부족으로 PC환경의 전자책 뷰어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이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출판 단계에서부터 표준 뷰어나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표준 플랫폼 개발의 어려움과 국내 출판업계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라고 생각된다.

네 번째 문제로는 장애인 이용 콘텐츠 부족을 들 수 있다. 인쇄 자료에 비하여 접근성의 편의성 때문에 장애인 이용자들은 전자도서관의 도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체적 장애와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오디오북·수화동화 및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문자 확대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보조 도구 등을 통하여 자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전자자료의 장애인 이용 콘텐츠 개발은 아주 미미하여 개발 비용에 비하여 구입처가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용 콘텐츠 개발을 꺼려하는 경향과 소수의 이용자를 위한 고가의 구입 비용을 투입할 공공기관의 예산 반영 의지가 높아지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전자도서관 이용은 한낱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